**3쇄용 정오표

문제편

369p

TEXT 09~10

다음은 신입생에게 기타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기타 동아리 '소리샘'입니다. '소리샘'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솟아나는 ㉠ 샘이므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타를 배우고 연주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기타를 전혀 못 쳐서 ㉡ 망서리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아리에

문단 나누기

문제편 410p 2013 6평

30~33번 지문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

무력을 삭제

273p 2014 수능 B형 6~7번

2. 개선 방안 제시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

2. 나/다에 ㄹ,ㅁ 넣기

276쪽 12번

2번 선택지

(ㄴ) 꼰노목 -> 꼬초목 으로 수정

256쪽 13번

ㄱ. 색깔이 희기가 -> 색깔이 희기 까지 밑줄

260쪽

22~23지문 9번째 줄 규명하여→ 규명하려

283쪽

30번 4번 선지 음악가드를 -> 음악가들을

282쪽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앎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고 여겼다.

4문단 '보편적 진리를 향한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넣기

문제편 350p

개요 2. 문제 원인 분석

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 넣기

기존 나 ->다 로 수정

문제편 264p

32번 1번 선지 격고 있는 -> 겪고 있는

문제편 267p

홍길동전 본문 11번째 줄 신이 전하를 받을어 -> 받들어

해설편 1부

80p

30번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로 있거나...'그로->그대로' 로 수정

157p 암흑물질 지문분석

빨강글씨 수정

~1933년	▪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음 ▪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

423p 16번
정답의 근거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재정위는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원숭이가 재정위를 활용한다는 점이 나온 부분을 명시하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라는 답을 고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숭이라는 개체종이 '재정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답의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만을 넣으면 '원숭이가 재정위 과정을 통해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라는 선지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내릴 수 없을 듯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학생분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므로 위의 지적은 일리있다고 생각되며,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라는 두 부분을 넣는 것이 더 깔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재정위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여 '원숭이'가 재정위과정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주목한 반면, 학생분께서는 원숭이가 재정위과정을 이용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여 '재정위'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이 이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주목하여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428p 25번 오답의 근거 1번 선택지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후에 개인정보 피해도 단체 소송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체 소송은 가입자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틀렸다.

434p 34번
오른쪽 상단 이인국 박스 -> 이인국 박사

91p 34번
2번보기 오답의 근거 중에서 한장판 -> 한정판

371p 32번
1번 선지 화자가 격고 있는 -> 겪고 있는